

신경관주의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ew Landscape Movement & Environmental Design Fusion

최근 환경설계분야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경관(景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왔으며, 2007년 경관법(景觀法)의 시행으로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영역간 담쌓기 경향을 보이던 건축, 도시, 조경 등의 환경설계분야가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설계 각 분야에서 경관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설계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경관건축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도시분야에서도 평면적 토지이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입체적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설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경분야에서는 경관에 대한 기존의 지각적 접근을 넘어 삶의 장소로서의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미시적 시각디자인을 넘어 도시적 경관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정치가, 경제학자, 영화제작자, 엔지니어 그리고 예술가들도 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설계 분야를 포함한 사회 각분야에서 경관에 관한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신경관주의(New Landscape Movement)**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80년대 중동에서의 건설특수경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게임 개최에 따라 경관 및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경관 및 조경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80년대의 경관에 관한 관심은 주로 '미화' 혹은 '심미적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의 경관에 대한 관심은 심미적 관점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융합적인 설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에 '경관'에 대한 관심이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최근의 경관에 대한 보다 확장된 관심을 **신경관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시대를 맞아 단지 한국에서만 경향이 아니라 80년대 초부터 경관(형성)계획을 시행해온 일본, 그리고 80년대에 시각자원의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북미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북미에서의 '생태학, 어바니즘, 공공건강(public health)'과 관련된 '경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신경관주의**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각국에서의 **신경관주의**의 가능성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이다.

신경관주의는 단순히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설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 분야들의 종합적, 통합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분야간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설계분야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역 다툼은 환경설계의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경관주의는 다양한 환경디자인 분야 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친환경적, 친인간적, 친경관적 지구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1세기 환경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융합환경설계"**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안)

- 주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후원: 한국경관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 협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룹한
- 일시 : 2010년 5월 20일 (목) 1:00 - 7:00 p.m.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 언어 :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등록 (1:00 - 1:30)

개회 (1:30 - 1:50) -----사회 (김대수/혜천대교수)

- 축사1. 안재락 한국경관학회장
- 축사2. 양윤재 한국도시설계학회장
- 축사3. 조세환 한국조경학회장

제1부 (1:50 - 3:10)

신경관주의의 대두

- 기조연설1. 북아메리카에서의 신경관주의 -- Niall Kirkwood (미국 하버드대 교수)
- 기조연설2. 한국에서의 신경관주의 -- 임 승 빈 (서울대 교수)
- 기조연설3. 중국에서의 신경관주의 -- Binyi Liu (중국 동지대 교수)
- 기조연설4. 일본에서의 신경관주의 -- Atsushi Deguchi (일본 규슈대 교수)

휴식 (3:10 - 3:20)

제2부 (3:20 - 4:40)

신경관주의의 환경설계분야별 전개양상

- 주제발표 1. 건축에서의 신경관주의 --- 서 현 (한양대 교수)
- 주제발표 2. 도시에서의 신경관주의 --- 류중석 (중앙대 교수)
- 주제발표 3. 조경에서의 신경관주의 --- 배정한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 4. 공공디자인에서의 신경관주의 --- 맹형재 (건국대 교수)

휴식 (4:40 - 4:50)

제3부 (4:50 - 6:00)

융합환경설계에 관한 종합토론 (좌장:김한배/서울시립대교수)

- 건축분야에서의 융합설계 ----- 김세용 (고려대교수)
- 도시분야에서의 융합설계 ----- 박소현 (서울대교수)
- 조경분야에서의 융합설계 ----- 주신하 (서울여대교수)
- 공공디자인분야에서의 융합설계 ----- 최경실 (이화여대교수)

*** Reception (6:00 - 7:00)